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6)

이 정업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된 내용이다. 왜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고, 깨끗케 하는 정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의 능력이 있다.

로마서 3:25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신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가져왔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나 죄인과 함께 교통할 수 없으시다.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내리신다. 그런데 죄인들과의 적대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바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그에게 모든 죄에 대한 값, 죽음과 형벌과 고통과 저주를 쏟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 피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음을 부활을 통해 입증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흘려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알려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서로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해주셨다. 에베소서 2:13-16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하였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만드신 것이다. 모든 중간의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새 사람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행 20:28)라고 말씀하신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교회인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들이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교회나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증거이다. 교단이나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다. 하나님 가족의 한 식구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 7:9-10)라고 경배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애쓸 지상의 교회도 비록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의 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하나된 자들이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서로를 하나로 화목케 하게 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피의 화목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식구들과 친구들과 교인들과 이웃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화목의 능력을 깊이 이해하거나 실천하지 못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맺지 말고 화목케 하는 자(peace-maker)로 살고, 또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자일 것이다.